

지역 소식통



김제지평선학당, 중학생 진로 탐색 명사 특강

김제시당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난 27일, 김제지평선학당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산업 변화 예측'과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진로 탐색'을 주제로 한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우석대학교 최창준 교수를 초청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미래 직업 전망을 다뤘으며, 두 번째 강연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진로 탐색 방법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하는 반면, 일부 직종의 소멸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주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주제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당장학재단은 이번 특강이 지역 학생들의 미래 준비와 학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성산업 직원 50명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해성산업 소속 임직원 50명이 김제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성산업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 반도체장비부품과 각종 기계 등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히 김제시 금구면 출신인 오승석 대표가 평소 지역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했으며 지난해에는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2024년 사업으로 '차세대 인공기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백산면 지사협

3분기 정기회의 등 개최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8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위원들을 임명하는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명(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은 앞으로 2년간 민관협력 등을 통해 지역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사업에 해소와 소외계층을 살피며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회의는 그간 지사협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하반기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2회 새로보미 축제' 100배 즐기기 위한 꿀팁 공개

80여개 프로그램 꼭 참여해보자

축제 화폐 모으기·재활용품 모아서 가져오기 등도

지난해 첫 포문을 열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새로보미 축제가 올해는 9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되면서 작년에 비해 행사규모가 2배 이상 커졌고, 그 만큼 프로그램이 이색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보미 축제만의 특별한 매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관람객들이 새로보미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새로보미축제 100배 즐기기 위한 꿀팁 7가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 보미존 => 노리존을 순서대로 즐긴다

축제장은 크게 새로존과 보미존, 그리고 노리존으로 구성된다.

새로존에서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보미존에서는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마지막으 노리존에서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화시켜 관람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 방문에 앞서 행사장 배치도를 보고 관람순서를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모든 프로그램 무조건 참여

축제장 곳곳에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80여개의 교육·체험·놀이 프로그램이

램이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새로보미축제 UCC콘테스트를 비롯해서 가족대상 업사이클링 경진대회, 가족대항 도전 그린볼 등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었다. 접수기간은 8월 30일까지다.

▲새로보미축제 화폐를 모아라

축제장에서는 쓰레기도 자원이 되고 돈이 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화폐가 유통된다. 각 존에서 체험을 한 관람객들에게 화폐가 제공되는데, 이렇게 모은 화폐들은 인생사진 찍기, VR 체험, 드론 체험, 솜사탕 만들기, 추억의 뽑기 등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재활용품 모아서 가져오기

폐건전지, 우유팩, 폐의약품, 투명페트병 등을 가져오면 '초록누리 교황소'에서 새 건전지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텀블러를 가져오면 시원한 아이스티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도 보호하고 교환품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전

9월 7일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새로보미축제 UCC콘테스트를 비롯해서 가족대상 업사이클링 경진대회, 가족대항 도전 그린볼 등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었다. 접수기간은 8월 30일까지다.

▲SNS 이벤트 참여하고 상품 받기

김제 새로보미 자원순환축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독 및 팔로우 이벤트에 참여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총20명)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추억을 담은 포토존을 찾아라!

카메라에 담은 모든 현상이 추억이 되겠지만, 새로보미축제의 이색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폐가구를 이용한 전시공간을 찾아라. 그리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초록누리를 찾아라.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축제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주말까지 축제 기간을 연장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8일 '2025 시책 및 2026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 미래 100년 이끌 혁신 아이디어 발굴

시, 2025 시책 · 2026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2025년 시책으로 화상영어 홈플러스 지원 등 49건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망해사 명승지 조성 등 34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 미래 100년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전북권 4대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시는 28일 '2025 시책 및 2026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성주 시장 주재로 전 부시장, 전북연구원 김보국 연구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신규사업 49건, 국가예산 신규사업 34건 등 총 83건(사업규모 1조3,759억원)의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발굴된 신규 시책은 △화상영어 홈플러스 지원사업, △전진훈련센터 건립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산단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사업,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등 49건이다.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망해사 일

원 국가대표 명승지 조성사업,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 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만경 능계 유원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국가하천(동진강) 친수공간 조성사업, △첨단융복합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34건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를 위해 전북연구원 전문가 5명이 참석해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등을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를 위해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도정시책에 부합하면서 김제시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귀농귀촌협 상관계지회장 자격시비 논란

‘집·주소·토지 없는데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의혹 일어

완주군 "자체 회칙 따라 결정할 일... 행정이 제재할 문제 아냐"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상관계지회장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이는 말로만 귀농귀촌이지 실제로 집도 주소도 토지도 없는 자가 귀농귀촌협의회 지회장을 맡고 있고, 심지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를 두고 완주군의 귀농귀촌 관리정책이 구멍이 뚫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27일 완주군과 귀농귀촌 관계지의 말을 종합하면 완주군에 토지도 집도 주소가 안 돼 있어서 지역 귀농귀촌협의회 지회장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 등 각종 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적구속력도 없는 귀농귀촌협의회 기본 회칙에 따를 뿐 어떠한 관련법이나 지침, 조례도 없어 행정제재를 할 수 없다. 완주군 또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들의 자율적인 운영에 두손을 놓은 상태다.

이처럼 유행인이 존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이를 관리할 완주군 해당실과, 각 읍면은 물론 농촌마을 가정의 손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는 지역 이장(협의회), 부녀회장(협의회) 등 여러 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상황이 상관계에서 벌어졌다. 해당 귀농귀촌지는 토지와 집도 없고, 주소도 이전하지 않았다는 의혹 상태에서 다년간 귀농귀촌협의회 지회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다 한 주민에 의해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여러 감투를 쓰고 지역민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러다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행정 또한 이를 알고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두손을 놓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대한 해명을 귀농귀촌협의회 상

관계지회장에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 B씨는 "민원인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귀농귀촌협의회 상관계지회장은 집도 있고 사업장과 영농조합법인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이 사실은 각 읍면 귀농귀촌협의회 지회장 모임이 한달에 한번 열리는 데,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한 "논란이 되자 당사자가 26일 귀농귀촌협의회 상관계지회장 직을 사임하고, 현재 부회장이 직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귀농귀촌협의회 지회장 직은 자율적인 자체 회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이 나서서 제재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완주군이 지난해만해도 완주군귀농귀촌센터에 6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행정지도 등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민은 물론, 이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한양건설, 봉동 한양 센텀포레 분양 중 더 넓은 주거환경 '눈길'

분양가 3.3㎡당 900여만원대

인근 시세대비 30% 이상 저렴

함께 산책하기에 더없는 공간이 될 것이고 봉산, 유년봉과 연계해 둘레길까지 조성됨에 따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인 관공서, 마트, 수영장, 영화관, 병원, 은행 등은 차량이동으로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바로 옆은 완주 미니북 아파트(상봉지구)로 약 3,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 택지에 제공되는 생활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남 고속도로 익산C, 익산~장수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등의 시통팔달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한 것이 장점이다. 사업지 인근으로 개발 호재까지 맞



한양건설 '봉동 한양 센텀포레' 조망도

들려 호남권 최초로 미국계 참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9분 거리에 입점할 계획이며, 5분 거리에 쿠팡 물류 배송센터가 현 운영중이다. 또한 2030년까지 완주군 봉동을 일원에 165만㎡(50만坪)규모에 수소특

유치되면서 완주 인구는 월평균 332명씩 늘고 있는 추세이나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삼봉지구, 운곡지구 택지단지들 아파트실거래가 고공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한 입지, 편리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춘 '봉동 한양 센텀포레'는 착한 분양가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급리,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당 현장은 분양가가 3.3㎡당 약 900만원대로 책정됐으며, 이는 인근 시세 (3.3㎡당 1,400만 원대)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분양률은 약 80%대 육박하고 있으며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부동산 미래투자가 치까지 더해져 문의전화와 방문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완주=염재복 기자